

무상 집 한 채

박순옥(시인)

누가 내 마음속에
무상으로 집 한 채
지어준 적이 있었던가

아무도
지어주지 않은 그런 집

매일 아침
만나는 커피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향기가
집 한 채를 선물로 준다

내 마음이
설 수 있는
멋지고 편안한 집

우리가 집 한 채 살려고 허리띠를 조이면서 돈을 모아 겨우 사게 되면 몸이 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뜨겁게 끓인 물에 커피를 타면 그 향기는 물론 모락모락 피어올라 화자를 품고도 남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곳저곳에 갈라져 들떠있던 마음을 불러 모아 가리앉혀주는 마력을 발휘하여 일상의 부담스럽고 피곤한 짐을 내려놓게 한다.

사물의 모습이나 움직임, 그리고 소리를 들으며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성을 찾아 비유하는 물두의 시간을 만나 느껴지는 대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매체로 선택하여 이야기하도록 자연스럽게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단순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소멸되고 마는 시간에 커피향기는 화자의 멋지고 편안한 집 한 채를 무상으로 선물하는 것이다. (윤제철)

모기보고 칼을 뽑다

이종만(수필가)

잠 못 자게 웅웅거리며 무차별 공격하는 모기만큼 짜증나게 하는 악질이 있을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증문’(알미운 모기)이라는 시(詩)까지 남겼다.

憎蚊[증문]

猛虎咆籬根[맹호포리근] : 사나운 호랑이가 울 밑에서 으르렁대도

我能齁齁眠[아능후후면] : 나는 능히 코를 골며 잠드는데

(중략)

一蚊響然聲到耳[일문앵연성도이] : 한 마리의 모기 소리 귓가에 들려오면

氣怯膽落腸內煎[기겁담락장내전] : 기겁하고 담 떨어져 마음 졸이네

(출전 : 여유당전서 4권/한국인문고전연구소)

다산(茶山)선생이 모기소리에 기겁했듯이, 백수의 왕인 호랑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기들에게 피를 빨린다고 한다. 어젯밤, 비몽사몽간에 무언가가 내 왼뺨을 근질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뺨을 쳤다. 손이 매운 편이라 뺨이 얼얼했다. 모기가 피를 마시고 떠난 뒤였다. 피해는 그뿐이 아니었다. 검지와 중지사이와, 왼쪽 귓불 아래쪽이 가려웠다. 내가 숙면 중일 때 물리는 줄도 모르고 물린 것이었다.

얼마 후, 오른뺨에 모기의 불쾌한 접촉이 느껴졌다. 나는 왼뺨을 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른뺨을 쳤다. 헛방이었다. 짜증은 배가 뻗었지만, 그것들의 목숨을 건 용기와 ‘신속·정밀한 흡혈작전’-어둠속에서 흡혈 가능한 최적의 공격점을 정하여 침으로 통로를 뚫고, 국소마취제와 항응고제를 주입한 뒤, 흡혈하고 회피비행까지 마치는 경이로운 작전-은 인정해야했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다행히 모기들이 뺨을 잘 흘리는 열성체질의 나만 집중 공격한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2시. 조금 후, 두어 군데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기들이 가까이서 공습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들렸다. 불을 켜고 모기들을 잡으려다간 아내가 잠을 깰 뿐만 아니라, 잠이 아예 멀리 달아날 수 있어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절실하면 목숨 걸고 왔느냐?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아

나 실컷 마셔라!’하는 호연한 마음을 가져야 했지만,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었다. 모기들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은 나를, 잠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뒤척였다.

그 때 아내가,

“나도 물렸어요. 얼굴보다 두 팔을 물으라고 이불밖에 내어 놓았네요. 일찍 깬지만 당신 깰 까봐 가만히 있었지“

라고 말했다. 밤 10시부터 약 4시간 수면을 취한 나와 달리, 모기소리에 예민한 아내는 잠을 설친 상황이었다.

두 가지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크게 일게 했다. 하나는, 꼬리가 긴 내가 어제 저녁 귀가할 때 출입문을 잘 닫지 않아 모기들에게 몇 분간 틈을 준 일이고, 다른 하나는, 김자경오페라단을 설립한 김자경(1917~1999)여사의 ‘결혼생활 회고담 한 부분’이었다.

-잠이 들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실눈을 뜨니 으스스한 새벽. 남편이 앉은 자세로 천정을 향해 고양이울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야옹’소리가 날 때에는 천정 쥐들이 멈춰 섰다가, 소리가 끊기는 사이사이 바빠 이동하는 듯 했다. 쥐들은 내가 잠들기 전에도 왕복달리기를 했었다. 남편은 내가 잠든 바로 직후부터 내가 깰 까봐 밤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는 요지의 회고였다.

모기들에게 무단침입죄와 안면방해죄를 묻고, 두 해 전인가 어린 손주의 왼쪽 눈꺼풀을 왕방울 만하게 만든 혐의(?)까지 씩워 처단하겠다고 결심했다. 분연히 일어나 불을 켰다.

“그대로 누워있어요. 나 혼자 잡아도 되니까”

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나의 장담이 못미더웠던지 아내가 머리맡에 놓인 책을 들고 일어나 신문지로 겹을 감쌌다.

모기들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모기들은 순간이동 하듯 출몰하며 우리를 조롱했다. 우리는 실내등을 켜다 껐다하다 휴대폰플래시까지 켜서 수색했다.

야간 층간소음에 민감한 아래층이 신경 쓰였다. 까치발을 했다. 모기를 잡으려 손바닥을 마주칠 때는 아기들이 짹짹하듯, 벽에 앉은 모기를 칠 때는 짓먹이 불을 도닥이듯 했다. 모기들은 잘도 빠져 나갔다.

어찌했든 환풍기, 화장실, 옷장 안까지 뒤져 5마리를 박살했다. 한 참 지나도 아무소리가 나지 않아 모기소탕전을 종료했다. 철저히 보복한 셈이었지만 한 밤중에 살생을 한 탓이었을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실내등을 모두 껐다.